

38번째, 농기구이야기

흙덩이를 깨부수는 농기구 ‘곰방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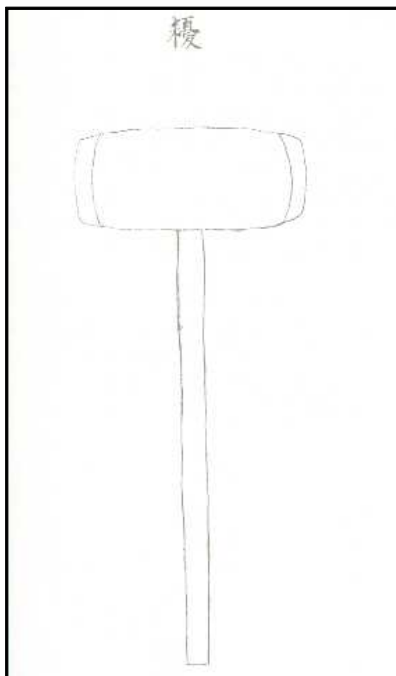


○ 편집 및 발행 : 농협중앙회 농업박물관 ○ 발행일 : 2011.5.1
○ 본 자료의 저작권은 농업박물관에 있으며, 무단도용 및 전재를 불허합니다.

1. 곰방메의 개념과 역사

곰방메는 흙덩이를 깨뜨리거나 씨를 뿌린 뒤 흙은 덮는 데에 쓰는 농기구이다. ‘메’는 묵직하고 둥그스름한 나무토막이나 쇠토막에 자루를 박아 무엇을 치거나 박을 때 쓰는 물건으로 쓰임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메는 말뚝을 박거나 땅을 다질 때 쓰였으며 떡을 치는 것은 ‘떡메’, 짚을 쳐서 부드럽게 만드는 메는 ‘짚메’라고 부른다. 곰방메는 떡메나 짚메와 유사한 모양이나 메에 비해 머리부분이 작은 것이 특징이다.

곰방메는 세종 11년(1429년) 편찬된 『농사직설(農事直說)』에서는 뇌목(櫛木)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18세기 말에 쓰여진 『해동농서(海東農書)』에는 ‘메’ ‘물보’, 1839년 간행된 『사류박해(事類博解)』에는 ‘곰방메’라고 불렀다. 충북 봉양에서는 통곰배, 경남 영산에서는 뭉통곰배, 전남 보성과 고흥에서는 곰뱅이 등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다.



<林園經濟志 ‘櫛’>

2. 곰방메의 재료 및 형태

곰방메는 지름 5~10cm 길이 30cm 가량 되는 통나무에 1-2m 남짓한 자루를 ‘T’자 모양으로 박았다. 흙덩이를 깨부수는 머리 부분은 잘 터지지 않는 단단한 나무를 쓰고 자루는 그보다 가벼운 나무를 사용하였다.

서유구가 19세기 초에 쓴 林園經濟志(임원경제지) 본리지에서 곰방메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곰방메는 흙덩이에 내려치는 연장이다. 『설문해자』에, 곰방메는 밭을 고르는 연장이다. “목(木)이 부수이고 우(憂)가 음이다.” 고 했다.

지금 농가에서 만드는 이빨없는 씨래[耖]이다. 머리는 마치와 같고 자루길이는 4척이며, 밭을 평평하게 하거나 흙덩이에 내려칠 수 있다. 목작(木斫)이라 하는 것도 이 곰방메이다. 『왕정농서』

대부분의 농기구들이 그렇지만, 곰방메는 사서 쓰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만드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나타난다. 머리 부분이 사각형이나 원형, 반달형 등이 있으며 자루의 굵기 또한 다양하다. 조선총독부에서 조사한 일제강점기의 곰방메는 일반적으로 자루의 길이가 118cm 머리 부분의 길이가 51.5cm, 굵기가 3cm, 폭이 1.2cm 정도의 것을 사용하여 하루 한사람이 600여 평을 처리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한편, 경상도 거제에서는 곰방메를 ‘등그리매’라고 불렀으며 자루의 길이가 125cm, 머리 부분의 길이가 20cm 정도 된 것이 사용되었으며 제주도에서 사용된 곰방메는 육지보다는 비교적 작은 크기로 자루길이 101.6cm, 머리 부분(곰배라고 부르기도 한다)은 28.6cm 정도의 것이 쓰였다.

곰방메에 몇 개의 구멍을 내고 나무를 깎아 박아 갈퀴처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전남 고흥지방에서는 ‘밭곰방메’라고 한다.



<밭곰방메 ©국립민속박물관>

3. 곰방메의 용도

곰방메는 주로 논이나 밭을 쟁기로 갈고 난 뒤 흙덩어리를 부스러뜨려 덩어리진 흙이 없도록 하는 도구이다. 우리나라 남부지방 일부에서는 벼를 추수한 땅에 바로 가을보리를 심는데, 물이 많았던 논흙이 뭉쳐져 있는 것을 곰방메로 두들겨 부순다. 또한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쟁기로 골을 낸 후 논밭의 골을 다듬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



<제주도에서 곰방메 사용 ©김동섭>

이밖에 씨 뿌린 뒤 흙덩어리를 고르고 씨앗을 덮는 데에도 사용된다. 쟁기나 따비를 이용하여 밭을 갈고 난 뒤 밭갈이 때 올라온 흙덩이를 퍼주면서 깊게 파인 곳을 메우거나 흙이 덮이지 않는 씨를 흙으로 묻어 나가는 것이다. 자루를 잡고 펴야 할 흙덩이를 정한 다음 곰방메를 옆이나 뒤로 들었다가 내리면서 때린다. 곰방메질 하는 것을 덩이치기, 덩이깨기, 곰배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요놈의 덩어리/ 헤쳐나 저라/ 써개어나 저라
우리 어머니 무슨 날에/ 날 낳았는고
남 낳은 날에/ 날 낳았으면/ 남이 운들 내야 올라*

위의 소리는 제주도 민요 중 곰배질(곰방메질)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 중 일부이다. 곰방메질은 바쁠 때에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해야 하는 일이었다. 파종할 씨를 뿌리는 남자 뒤에서 혼자 혹은 두 세 사람이 합동으로 흙덩이를 부수면서 능률을 높이기도 하였다. 힘들었던 '곰배' 작업의 고단함과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노래로 곰방메질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4. 흙을 부수거나 흙을 덮는 도구

곰방메와 같이 흙을 부수거나 씨를 뿌린 뒤 흙을 덮는 도구로는 고무래와 발고무래가 있다. 형태는 곰방메와 유사하나 모양에 따라 조금씩 주용도가 다르다.



<고무래(좌)와 발고무래(우)>

메와 유사한 형태의 곰방메가 흙덩이를 부수는데 적합하다면, '고무래'는 머리부분이 직사각형 혹은 반달형의 나무조각을 댄 형태로 흙을 부수기에는 약하고, 밭의 흙을 덮거나 곡식 등을 굽어 모이는 데 쓰인다. '발고무래'는 곰방메와 고무래의 두 기능을 합친 형태로 곰방메처럼 둥근 나무에 짧은 밭을 달거나 모난 나무에 밭을 댄 형태이다. 주로 보리나 감자를 심고 덮을 때 사용하며 때로는 흙덩이를 깨뜨리는데 사용한다.

【참고문헌】

국립국어원.

김광언, 『한국의 농기구』, 문화재관리국, 1969.

조선총독부 편, 조선의 재래농구, 1995.

『한국농기구도감』, 한국농업기계학회, 2001.

서유구, 『임원경제지』 본리지3, 2009.

『한민족역사도감 생업』, 국립민속박물관, 2008.

김동섭, 『제주도 전래농기구』, 2004.